

한국의 건축가 13 - 홍순인(완)

Korean Architect, Hong Soon-In

작품과 건축철학

최완호 / 건축사사무소 예소

by Choi Wan-Ho

◇ 연 재 목 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12. 김인호 (9804~9806)
13. 홍순인 (9807~9809)

1. 탄생배경 및 성장과정과 건축수업
2. 사무소 개설과 건축 활동
3. 작품과 건축철학

내 용	수
학교	19
주택	13
사무소	12
문화회관	4
주거단지	4
별장	2
교회	2
병원	2
호텔	3
박물관	1
연수원	1
백화점	1
합계	64

(홍순인 작품의 내용별 분류)

고인의 세워진 건물만 가지고서 한 건축가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가 있다. 그것은 건물속에 내재돼 있는 작가의 정신, 철학 및 사상을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이 남긴 글과 가르침, 그리고 현장학인을 통해서 그의 작품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그의 모든 작품을 다 다룰 수는 없기에 수상작을 중심으로 그의 건축철학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그가 작품에 즐겨 사용했던 건축어휘나 공간연출기법을 밝혀 보고자 한다.

출판문화회관(1974년)

홍순인의 데뷔작으로써 많은 노력과 애정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지금은 큰 건물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주위에 큰 건물이 없었던 때라 지나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었던 큰 규모의 건물이었다. 설계자는 도로 전면에 있는 중앙청과 인근에 있는 동십자각, 근정전, 경회루, 건춘문 등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건물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외벽재료로 회색전돌을 사용하였고 조적조의 표현으로 가능한 벽체양감이나 아취, 모서리접기 등을 시도하였다. 창문에서는 스틸과 유리의 조합적인 디테일 처리로 특이한 창문형태를 구성하였는데 평범한 창으로는 특징있는 건물이 될 수 없다는 작가의 철학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평면계획에 있어서도 코아배치가 절묘하다. 권총처럼 생긴 부지에서 코아의 위치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쪽 측면에 배치하면 넓은 사무공간을 얻을 수는 있지만 동선이 길어지게 된다. 감추어진 중앙에 코아를 배치하고 상하로 나누어진 공간을 기능별로 분할함으로써 코아문제를 절묘하게 해결하였다. 코아의 해결로 전면의 입면계획이 보다 수월해질 수가 있었으며 중앙계단도 노출된 원형계단으로 로비와 홀의 분위기를 개방적이면서 다양성있도록 했다.

종로코아 빌딩(1975년)

이 건물은 1983년 7월 동아일보사가 주관하여 건축가 김수근씨 등 전문가 10인이 엄선한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10대 건축물로 선정되었다. "코아준커 피습"을 통해 젊은이들의 메카가 되어 '코아족'을 탄생시켰으며 국내 최대 선물용품 매장인 '코아아트'와 아트필름 중심의 영화관 '코아아트홀'을 통해 젊은이와 만나고 있는 '종로코아빌딩'은 우리나라 최초로 건물명에 '코아'를 사용하여 수많은 코아빌딩의 효시가 되었다." 이상의 말은 1층 로비와 극장전용 출입구홀에 설치된 건물 설명의 글이다.

처음 시공때와 달리 1층에서 4층까지의 용도가 많이 달라졌지만 주고객층이 젊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1층의 분수대가 영화관 매표소로 변하고 2층 및 3층의 용도가 영화관으로 달라져 1층 홀부터 3층까지의 개방된 계단의 분위기와 멋이 처음때보다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건물앞의 주도로가 차량이 금지된 휴게시설과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전보다 더욱 많은 젊은이들로 붐비고 있다.

설계자의 뜻에 따라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으로 시작하여 성공한 이 건물은 앞으로도 계속 많은 젊은이로부터 사랑받는 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계자의 용도제안을 건축주가 수용하고 시공된 후 설계자의 예측이 맞음으로 건축주는 열정을 갖고 설계해준 건축가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설계자가 죽은 지 15년이 넘었지만 설계자의 이름을 자신의 건물홀부분에 기록하여 출입하는 모든 이에게 건축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축주의 배려가 부러울 뿐이다.

한국은행 본점계획안(1975년)

홍순인은 생존시 현상설계에 여러번 참여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 계획안도 결과는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람을 느꼈던 작품이었다.

건축법에 의한 높이제한으로 대지중앙에 사무기능의 고층부(지상30층)를 배치하고 광장측에는 일선 업무기능을, 후면이나 측면에는 서비스부분과 후생기능을 배치하였다. 지상에는 대강당 및 회의장 등의 메이저스페이스를 두고 지하에는 안전계획부, 금고 등 통제구역이나 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기능들을 배치하였다.

대지의 3면이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동선 2개와 특수동선 2개를 각각 다른 위치에서 진입시키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과 차량의 기능과 업무에 따라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다. 고층부인 사무소의 Span은 8.1m×9m로 기준층의 사무소 분할, 코아내의 기능분배, 지상층의 영업장공간,

지하주차장 등을 고려하여 나온 것이며 특히 코아를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동선의 단축을 도모하고 사무실에서는 외부로의 조망이 차단되지 않는 커튼월방식을 도입하였다.

온양민속박물관 계획안(1976년)

이 작품은 필자가 대우건축연구소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이다. 홍순인은 작품성이 높은 이일에 상당기간 애착을 갖고 임했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계획안으로만 끝났다.

당시 건축주인 계몽사의 김원대씨는 많은 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소장한 분으로 본인의 숙원인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출판문화회관의 건립을 계기로 알게 되었으나 건축가의 능력을 인정한 그는 그일 이후로 홍순인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자신의 숙원사업까지 맡기게 되었으며 일이 진행되는 동안도 제동사무소를 찾아와 건축가와 많은 협의를 하는 등 건축주로서는 보기 드문 열정을 보여주곤 하였다.

현재 이 부지에는 다른 건축가에 의해 민속박물관이 지어져 있지만 기본적인 배치와 계획의 개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의 건물이 단순한 Box형의 연속순로형식이라면 홍순인의 계획안은 전시실 사이에 휴게실을 두어 관람동선이 지루하지 않도록 한 것과 중앙에 중정을 두어 전시실이나 휴게실에서 중정을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관람자의 시각 및 심리적피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박물관건축에서는 기능 및 동선계획이 다른 계획보다 우선된다. 이 계획안에서는 내부전시와 외부전시로 나누어지며 내부전시는 본관의 1층과 2층을 연속순로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외부전시는 본관을 나와 완만한 경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면서 지역별 민속주거의 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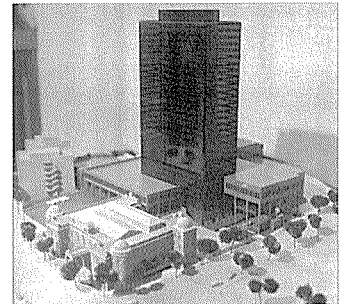
이 계획안의 특징은 특별전시실을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전시순로의 강제성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별전시실은 가변성 칸막이를 설치하여 전시실로 사용



출판 문화회관



중로 코아빌딩



한국은행 본점 계획안

시에는 통로와의 칸막이로 공간이 구획되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개방하여 휴게실이나 Ent. Hall의 겸용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이용도를 가변적이면서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관람자의 필요에 따라 휴게실에서 쉬거나 중간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다른 전시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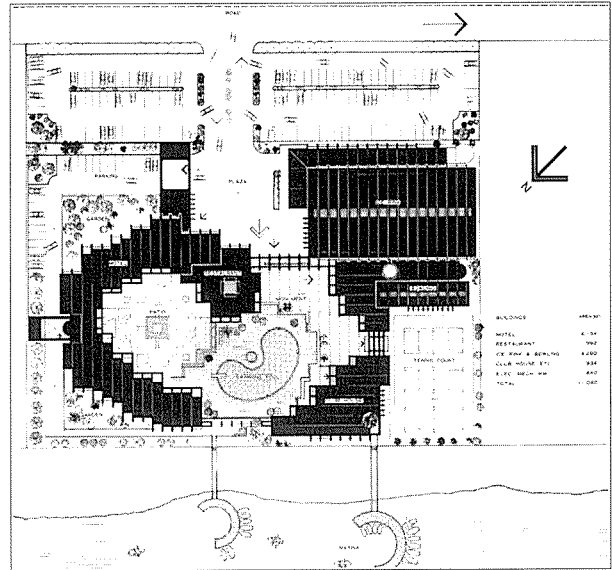
인천 화랑교회(1977년) - 기독교와 홍순인

생존시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홍순인의 교회에 대한 설계자세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 필자의 궁금함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자라온 유교적 가정과 고향의 환경으로 교회에 출석은 안했어도 마음으로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포용했던 사람이었다.

필자가 홍순인을 따라 충북대에 다녀오면서 차안에서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했을 때에도 그는 거부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나갈 것이라 했다. 그리고 한 번은 기독교 뮤지컬 공연티켓을 드렸더니 부인과 함께 관람했다고 했다. 더욱이 미선계통의 중고교를 6년이나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기본지식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교회보다는 포근하고 아늑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그의 고백처럼 1층 평면은 장방형의 성전에 우측면을 불규칙하게 부가시킨 형태로 그 부분에 성가대와 자모실을 배치하여 기능과 형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교회는 회색전돌의 사용과 독특한 입면구성으로 설계자의 의도와는 달리 강한 느낌을 주고 있다. 건물상부의 아치, 측면의 돌출창, 노출보와 강한 색의 대비로 구성된 입면형태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지금이야 톨라이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축어휘이지만 당시에 강단 상부에 톨라이트를 설치한 것은 설계자의 공간연출 능력이 앞서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붕구조를 파이프 트러스구조로 하여 노출시킨 것도 벽돌 일색의 내부에서 변화를 시도한 경우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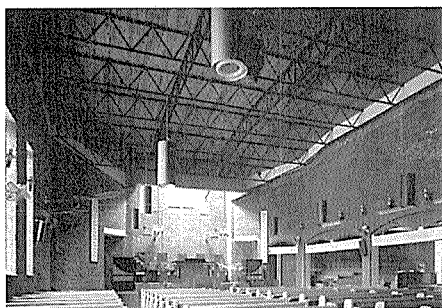
주메리아 비치모텔 레크레이션시설 마스터플랜

특히 등기구를 달아 내림으로 노출된 트러스와 함께 장식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엄숙하고 조용한 교회건축에서 내부공간의 다양성과 변화를 시도하려는 건축가의 노력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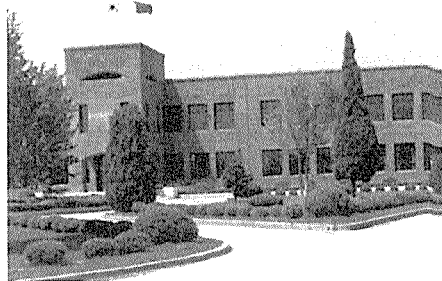
주메리아 비치모텔 레크레이션시설(1977년)

1977년 6월에 시작해서 그해 10월에 끝난 프로젝트로 KOCC(한국해의 개발공사)를 통해 Turn Key Base로 이루어진 일이다. 모래뿐인 삭막한 Dubai의 한 해변에 한국적 스타일을 뿌리 내리려고 시도했던 작품으로 40실의 모텔, 아이스링크, 볼링장, 클럽하우스, 레크레이션 공간, 수영장, 테니스코트, 부대 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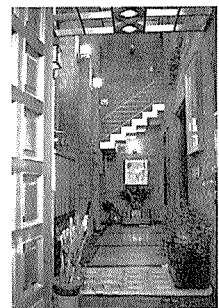
주메리아 비치는 평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스터플랜에서 의도된 아름다운 해변가는 이러한 평지형의 스카이라인과 대비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물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주메리아 비치에는 수상스키, 모터



인천 화랑교회



충청 교육대학교 본관



동성동 박원장 주택

보트, 요트경기, 낚시를 즐기며 흥미로운 레크레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중동지역에서 기대하기 힘든 아이스링크, 볼링, 수영, 테니스 같은 경이로운 스포츠까지 경험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간은 활동공간(아이스링크, 볼링장, 테니스코트, 수영장, 요트장, 모텔)과 비활동공간(레스토랑, 스넥, 라운지홀, 주차시설)으로 구분되어지며 이러한 공간들은 완충공간(Buffer Zone)으로 분리되도록 하였고 순환의 흐름을 고려하여 두 공간 사이에 수영장을 놓이도록 하였다.

춘천 교육대학교 본관개축(1978년)

오래된 건물을 기본적인 골조만 남기고 다시 리노베이션한 개축공사이다.

지상 2층의 길이가 긴 전형적인 학교건물을 창문 형태구성을 새롭게 하고 코아부분의 입면 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전체 외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창문형태의 새로운 구성을 긴 입면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수직으로 길게 창을 만들고 중앙계단실과 좌우의 계단실의 입면형태를 주기능부분(강의실, 사무실)과 달리함으로써 건물 길이감을 짧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건축가 홍순인이 그의 작품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의 건축어휘라고 본다. 또한 입면형태를 주기능에서는 반복과 통일성을 이루고 부기능(출입구, 계단실)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구성을 통해 형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주기능은 보호하고 부기능에서 입면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후에 충북대학교의 건물에도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외관재료를 변색벽돌을 새롭게 사용함으로써 벽돌자체의 질감, 아치의 도입, 창호와의 디테일 등으로 중후하고 정리된 새로운 건물이 될 수 있었다.

동송동 박원장 주택(1978년)

1979년 대한건축사협회상을 수상한 이 주택은 1층이 Skip Floor형식의 평면으로 계단과 홀을 중심으로 한 공간

의 변화와 다양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Box형태안에서 자유롭게 공간을 분할하면서도 건물측면의 일부는 비워줌으로써 평면적으로나 입면적으로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워진 부분은 헛기둥과 헛보를 설치함으로써 내외부의 완충공간역할을 하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비움의 건축어휘는 장방형의 입면구성을 더욱 세련되고 조화있게 해 주고 있다. 또한 옐로우색의 전돌과 노출콘크리트면의 백색, 그리고 일사량 조절용으로 설치한 목재수평루버의 자연적인 색상과 재료의 조화도 이 건물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요소이다. 특히 의도된 전면의 여러 개의 돌출벽은 수직수평의 그리드와 벽면의 분절을 가져옴으로써 외관을 더욱 안정되고 형태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현관을 들어서면 긴 홀이 나타나지만 2층으로 개방된 천정과 Top Light, 그리고 식당과 계단으로 열린 벽면들로 인해 답답하지가 않다. 또한 계단을 'L'자로 오르내리면서 현관과 홀의 상부를 통해 외부를 바라볼 수가 있도록 한 것이나, 개방된 벽면으로도 식당부분이 살며시 보이는 것도 설계자의 의도된 공간 연출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논현빌딩(1979년)

부지는 50m의 강남대로와 30m의 고속터미널 방향의 도로를 가진 논현동사거리의 모퉁이 대지이다. 대지의 고저차가 30m 도로보다 2m 정도 높고 북측방향으로 건물을 붙였기 때문에 남측도로의 개방감이 더욱 넓게 보인다. 따라서 신사동에서 진입때보다 뉴욕제과쪽에서 오면서 건물이 더 잘 보이고 있다. 지금이야 주위에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건물과 박춘명씨가 설계한 영풍빌딩정도가 고층빌딩에 속하였다. 이 건물앞에는 화원이 있어 멀리서 보면 부지가 장방형대지로 보이지만 화원부지를 빼면 대지모양이 불규칙하게 생겼다.

이 화원땅을 구입하는 문제로 여러 번 계획안이 변경되었지만 끝내 대지 가격문제로 땅매입을 포기하고 현재의 건물만 들어서게 된 것이다.

논현빌딩은 임대사무실로 임대면적의 극대화



논현빌딩



충북대 교육관



충북대 교육관(3층 Roof Bridge에서 본 중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코아를 북측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하였는데 대지위치가 좋고 조망조건이 좋아서인지 임대가 잘된 편이었다. 이 건물의 또 다른 특징은 외벽이 PC패널이라는 점이다. 외벽재료는 자기질타일로 하였는데 타일의 단점은 시간이 가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이 건물의 타일은 PC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견고하게 붙어 있다. 당시 PC패널은 우림콘크리트에서 제작시공함으로써 꽤 견고성있게 시공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건물이 시공되어지는 동안은 필자가 자주 나가서 감리를 보았기에 이 건물에 대한 기억은 어느 정도 되살릴 수가 있다. 8m Span에 폭 1.6m의 PC패널을 5개 붙이도록 되어 있는 이 건물은 무난한 입면을 갖고 있으며 장방형의 입면에 창을 수직으로 길게 함으로써 장방형입면에서 어둡해질 수 있는 입면형태를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북대학교 교육관(1979년)

1979년 5월에 설계착수하여 1981년에 준공된 건물로 마스터플랜이 결정된후 2번째 완성된 건물이다. 1981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교육관은 'ㄱ'자의 건물로 중앙에 50m×70m의 중정을 설치하고 3면에 공간의 시퀀스를 이루기 위하여 오버브리지나 필로티를 설치하였다. 필로티부분의 열린 부분이 휴먼스케일의 규모를 벗어나 다소 크게 보이는 문제점이 있으나 필로티나 오버브리지를 통한 시각적인 연결은 중정의 소공간과 외부의 대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특히 이곳의 중정은 적절한 규모와 스케일로 마치 전통건축의 내정과 같은 아늑함과 포근함을 줌으로써 이곳을 지나거나 조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건물 코너에 위치한 4군데의 코아부분은 평면적으로나 입면적으로 변화의 장소이다. 평면적으로는 동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학생들은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한다. 내정이 보이며 동시에 외부의 캠퍼스도 볼 수 있는 곳이다. 입면의 형태도 이 코아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주기능에서는

입면형태가 반복적이고 통일적이지만 주기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입면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정이나 오버브리지에서 합동강의실 상부의 Roof Bridge(3층 부분)의 열린 부분을 통해 하늘이 보이는 조망의 묘미도 교육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의 하나이다.

충북대학교 농학관(1979년)

종합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대로 배치되고 디자인되었던 이 건물은 2차에 걸쳐 공사가 이루어졌다. 'ㄱ'자 형태의 건물로 교육관과 같이 내부에 중정을 설치한 농학관은 교육관과 같이 오버브리지나 필로티를 도입하여 공간의 시퀀스를 이루고 있다. 필로티의 수직적인 기둥과 수평적인 오버브리지사이로 보여지는 중정의 모습은 교육관보다 적극이며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다. 중정의 모습도 폐쇄성을 줄이기 위해 건물 한 면의 반을 개방하였고 중정내에서도 레벨차이가 있으나 경사로와 계단의 설치로 레벨차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1982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이 건물은 정문에서 들어오다가 우측으로 꺾어져서 들어오게 되면 5m 높이의 계단을 만나게 된다. 계단을 서서히 오르면 필로티와 오버브리지와 그 사이로 중정과 언덕위의 건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마치 우리의 사찰을 가면 계단을 통해 누각 밑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마당을 통해 대웅전을 만나게 되는 동선의 과정과 흡사함을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다. 외부의 계단과 필로티의 연결도 설계자의 의도된 연출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이 건물 역시 주기능은 보호되고 주기능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오버브리지의 재료도 건물과 동일한 변색벽돌을 사용함으로써 건물 전체의 일체감을 높였으며 필로티사이로 관입된 오버브리지의 깊이감이 이 건물의 형태감과 질을 높여주고 있다 하겠다.



충북대 농학관 (오버브리지에서 본 중정)



충북대 농학관 (오버브리지와 중정)



충북대 사회과학관

충북대학교 사회과학관(1980년)

1981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이 건물은 충북대학교내에 시공되어진 홍순인의 작품중에서 가장 뛰어난 조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매스의 분절과 함께 건물측면에 2개층 또는 3개층 높이의 헛기둥과 벽면의 연결은 이 건물의 조형성과 긴장감을 더 해주고 있다 하겠다. 사회과학관에 적용된 이러한 조형적인 건축어휘는 이후 많은 건축가들에 의해 타대학 캠퍼스에도 사용되어졌다.

홍순인은 대학캠퍼스가 건물과 부지뿐만 아니라 존속되어서는 안되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이미지를 형상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고 공간을 연출하는 것은 비단 건축가뿐만 아니라 캠퍼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본다.

필로티부분과 오버브리지를 통한 공간의 시퀀스의 기법은 이곳에서도 사용되었으며 필로티에서 열려진 내외부의 조망은 한결 제한적이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1층의 합동강의실앞의 로비는 학생들의 휴게공간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도 휴게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홀 부분은 2단의 레벨차이를 뚫으로써 통로부분과의 구획을 분명히 하고 통과동선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건축가의 의도라고 생각되어진다.

충북대학교 인문관(1981년)

충북대학교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 인문관은 사회과학관과 같이 건물 Mass의 중첩을 통하여 적극적인 조형성을 추구한 건물이다. 평면적으로나 입면적으로는 사회과학관보다 긴장감이 덜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매스의 관입과 헛기둥처리가 건물의 형태성을 높이고 있다. 평면에서도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1층의 로비에 레벨차이가 나는 휴게실의 설치나 몇 번의 단 차이로 공간의 변화를 도모한 것과 그리고 높은 레벨차이를 몇 번에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합동강의실의 주출입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각층의 홀을 통해 외부로의 시각적인 조망을 열어주는 설계자의 연속기법은 이 건물에서도 반복되었다. 현재 이 건물의 좌측에는 디자인어휘나 재료의 질감, 그리고 Mass의 느낌이 다른 건물이 아무런 생각없이 증축되어 붙어 있다. 조화되어진 모습이 아닌 부조화로 붙어 있음이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역삼동 임씨주택(1980년)

1981년 대한건축사협회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설계부터 시공기간 내내 건축가가 즐거움과 기쁨을 갖고 매달린 일이었다. 이 주택은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진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문을 열면 거실의 하부인 차고의 벽체가 보일 뿐 현관은 보이지 않는다. 대문을 열고 좌측으로 돌아 몇걸음을 가야만 정원과 현관이 보이는데 설계자는 이러한 진입과정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다.

홍순인은 평소 그의 작품에 암시와 여운이라는 건축어휘를 많이 사용했다. 목적지를 바로 보여주지 않고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느낌과 Sign을 줌으로써 보행자는 기대를 갖고, 지루하지 않게 목표를 향해 가게 되며 동선과정의 풍경과 균경을 즐기면서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관에서는 손님과 주인의 방향을 분리시키고 있다. 손님이 1층보다 약간 높은 거실로 이동되어지면 이 집에서는 가족의 동선이 손님의 동선과 마추치는 일은 없다. 인방, 식당, 거실은 정원을 감싸고 있어 정원을 바라볼 수 있게 했고 2층의 가족실에서도 넓은 정원이 시야에 들어온다.

1980년 이후부터 홍순인은 주택에 모임지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전통건축의 요소중 하나로 지붕의 형태를 인식하려 했던 그는 중첩된 지붕과 처마의 어울림을 좋아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승동 주택과 같은 홀 부분의 개방감과 공간의 다양성은 없지만 기능과 동선계획의 합리성을 찾을 수 있으며 대지의 고저차를 적절하게 이용한 평면계획과 입면계획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충북대 사회과학관



충북대 인문관



충북대 인문관

이마빌딩(1981년)

홍순인은 자신의 건축작품활동에서 도심지에 내세울 만한 오피스빌딩이 없었던 것을 늘 아쉬워했다. 그러던 중에 지면이 있었던 한 건축주로부터 업무빌딩의 설계의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마빌딩이었다.

당시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설계비를 받고서도 이일에 착수하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숙원이었던 도심지의 업무빌딩에 대한 일의 욕심이 컸기 때문이었다. 적은 설계비와 불리한 설계계약조건속에서 시작한 이일에 홍순인은 일의 욕심을 갖고 다시 한번 열정을 쏟아냈다.

업무빌딩의 설계는 코아계획과 주차장계획, 그리고 입면계획이 끝나면 거의 다 끝나게 된다. 하지만 이마빌딩은 건축주로부터 주문사항이 많았다. 부지에 적절한 층수는 10층 내지 12층 정도였지만 건축주는 15층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계자에게 위약금을 물리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마빌딩의 위치는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도심지의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관청의 여러가지 심의를 받아야 했으며 허가 당시에는 5공 초기로 청와대와 관련된 관청의 허가나 심의의 어려움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홍순인은 높이제한의 범위내에서 층수를 늘이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고심한 끝에 기준층의 층고를 줄이기로 하였다. 그래서 당시 대우건축연구소와 구조파트너로 일했던 신중순(작고)씨의 협조속에 일반업무빌딩의 층고보다 0.6m 이상 적은 3.4m를 기준층 층고로 하였는데 이것은 냉난방의 공조덕트와 등기구설치를 감안하면 일반적인 빌딩에서는 불가능한 층고 높이였다.

구조기술사인 신중순씨는 늘 긍정적이며 자신만만하게 일을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도 건물내부에 기둥이나 보가 따로 없는 Wall and Slab 공법으로 구조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었다. 두께 27cm의 무량판슬래브는 Core Wall과 외벽의 Wall을 지지점으로 보없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으며 슬래브의 진동 역시 보가 있는 얇은 슬래브보다 적은 편이었다.

신중순씨는 자주 슬래브위에서 몸을 뛰어보며 자

신이 설계한 구조의 안정성을 필자에게 자랑해 보이기도 하였다. 이마빌딩은 필자가 터파기부터 골조공사가 끝나기까지 현장에 상주했던 건물로 남다른 감회와 기억이 많은 건물이다.

이마빌딩의 경우는 건축주가 설계자를 건축가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건물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건축행정이거나 건축관리자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마빌딩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외관의 준수함은 최근에 지어지는 어느 오피스빌딩에도 뒤지지 않는다. 설계자가 많은 시간동안 고민했던 전체 입면과 창의 비례, 그리고 측면에 설치된 주출입구 부분의 형태구성의 디자인 연구는 이 건물을 아직까지도 아름답게 해주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글을 마치면서

건축가 홍순인 선생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건축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극복한 사람이다. 생존하여 있다고 해도 60의 나이가 안된 그분의 건축생애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한 건축가의 정신과 자세를 뒤돌아봄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본다.

IMF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건축사가 사무소의 문을 닫고 있지만 젊은 건축가 홍순인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자기발전의 시기와 기회로 승화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분이 살아 있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건축공부와 자기발전 노력에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짧은 지면을 통해 그분의 건축을 올바르게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 필자의 글이 선생의 업적과 평가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필자의 필력의 부족함으로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반가운 소식은 선생의 차남 이식군이 건축을 계승하고 있다고 한다. 부디 아버지를 빼닮은 건축가가 되어서 선생의 못 다한 이 땅에서의 건축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충북대 건설공학관



충북대 자연과학관



이마빌딩